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학과 개설형태

이 정 선*

실용음악교육이 한국 대학에서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지금은 42개 전문대학과 30개 대학 등 70여개의 대학에 실용음악계열 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실용음악학과의 태동과 그 변천과정, 그리고 학과 개설형태를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실용음악을 교육하는 학과의 개설형태를 다음의 세 가지 패턴으로 구분하였다. 1) 처음부터 실용음악학대로 개설되었다. 2) 기존의 음악과나 생활음악과의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었다. 3) 내부전공에서 발전하여 실용음악과가 되었다.

※ 주제어 : 실용음악교육, 실용음악과, 대중음악, 생활음악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태동

1. 실용음악의 정의
2. 2년제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발전
3. 4년제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발전

III. 대학 실용음악 계열학과의 개설형태

1. 신설 또는 명칭변경 학과
2. 학과의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개설
3. 내부전공에서 실용음악학과로 발전

IV. 결론

*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부교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에서 대중음악을 교육하는 학과의 명칭을 ‘실용음악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서울예술대학(전, 서울예술전문학교)이 최초이다. 1988년 서울예대 국악과2부에 개설된 실용음악전공은 1989년에 실용음악과로 명칭을 바꾸고 학과가 되었다. 1994년부터 전문대학 음악과에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기 시작했지만, 1996년까지 서울예대 실용음악과는 대학에서 실용음악교육을 하는 유일한 학과였다. 1997년, 한서대학교에 실용음악계열인 영상음악과가 신설되면서 실용음악교육은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의 2·3년제 대학과 30개의 4년제 대학교, 그리고 20개 대학원에서 실용음악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 특히 청소년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대중음악으로 대표되는 실용음악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일부분 하위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실용음악의 수준을 높이고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기존의 음악교육과 차별화된 실용음악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음악교육공학’, ‘음악과 민족’, ‘음악교육연구’, 계간 ‘낭만음악’ 등의 음악 관련 전문 학술지를 통해 실용음악교육에 대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¹⁾. 또한 “실용음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이정선, 2000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실용음악관련 석사학위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용음악의 교과과정, 교육 실태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1) 음악과 민족: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박철홍, 2001)

음악교육공학: “실용적 음악교육의 문화콘텐츠산업으로의 접근”, (이에스더, 2007), “실용음악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이에스더, 2008년) 등

2) “한국대학의 대중음악교육에 관한 연구”(김인호 2006년): “대학 실용음악 프로그램의 요구와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박선영, 2006년): “국내외 실용음악 교과과정 연구”(안용성, 2007년): “실용음악교육에 관한 연구”(황정희, 2007년) 등

2-4년제 대학 내에서 실용음악학과의 태동된 배경과 개설현황, 그리고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실용음악교육이 시작된 교육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발전에서 현황까지의 과정을 조사 정리하여 실용음악교육 연구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실용음악학과의 개설로부터 그 발전과정과 현황에 대한 연구의 근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 또는 근거자료가 극도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실용음악교육현장에서 연구자가 채집한 자료들과 함께, 대학원을 포함하여 실용음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90개 학과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초연구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의 정리를 처음 시작한 5년 전과 비교해서 검색을 위한 인터넷의 활용도는 아주 편리하였으며,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한계점은 수시로 자료가 달라진다는 점으로, 많은 대학들이 URL과 자료를 바꾸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과연혁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학과들이 많았으므로 본 연구를 위한 방법에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본 연구자는 서울예대, 동덕여대, 호원대, 청운대, 동아방송대, 성민대, 여주대, 경희대, 명지전문대, 단국대 등 각 대학 실용음악계열 학과의 교·강사 및 교육관련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실용음악과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시작되고 발전하였고, 본 연구의 특성상 그리고 미국 대학은 실용음악이 아닌 재즈(Jazz)음악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연구 및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II.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태동

1. 실용음악의 정의

현재 대중음악을 가르치는 많은 학교들의 학과 명칭이 실용음악과(실용음악전공), 대중음악과, 방송음악과, 생활음악과, 영상음악과, 포스트모던음악과, 뮤직프로덕션과, 재즈음악과 등으로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클래식음악과와 달리 대중음악을 교육하는 실용음악과라는 학과명은 통일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실용음악’이라는 용어가 널리 일반화되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1) 실용음악(Gebrauchsmusik)

‘실용음악’이라고 번역되는 외국어는 독일어의 Gebrauchsmusik에서 기원되었다. Gebrauchsmusik(실용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음악학자는 ‘하인리히 베셀러’였고, 13-4세기 모테트에 관한 그의 논문(Freiburg, 1925)에서 옛 음악은 미학의 객체로서보다는 매일 매일의 생의 일부분으로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음악이라고 파악하면서 실용음악의 역사적 근원을 제시하였다³⁾. 19~20세기 음악이 지나치게 지적이고 기교가 너무 복잡하여 아마추어가 연주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전문적인 데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이 음악(실용음악)의 목적은, 비전문적인 음악 애호가들이 연주하기에 적당한 곡을 제공하여 아마추어도 음악을 즐길 수

3) “하인리히 베셀러(Heinrich Bessler, 1900-1969, 독일의 음악학자)는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정신계를 지배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영향을 받아 음악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Stephan Hinton, “Germany, 1918-1945” Modern Times, ed. Robert Morgan (Englewood Cliffs Jersey: Prentice-Hall, 1994), 정혜경, “20세기 전반기 동안의 실용음악의 실체”,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p. 91에서 재인용.

있게 하는 데 있었다. 실용음악(Gebrauchsmusik)은 이렇게 서양음악사에서 1920년대 독일에서 생겨났다가 30년대에 나치정권의 박해로 주춤해진 하나의 음악적 사조로서 이해되고 있고, 음악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용음악(Angewandte Musik) 또는 기능음악(Funktionale Musik)도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2) 실용음악(Applied Music)

한국에서 클래식음악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1989년, 서울예대 실용음악과가 알려지면서 ‘실용음악(Gebrauchsmusik)⁴⁾이 아닌 ‘실용음악(Applied Music)’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Applied Music’을 ‘실용음악(實用音樂)’의 영어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응용과학(Applied Science)처럼 Applied Music을 응용음악(應用音樂)⁵⁾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응용음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중음악’보다는 학문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응용음악’은 서양의 클래식음악을 기본으로 세계의 민속음악 등을 포함하고, 음악치료(음악요법), 음악비즈니스 등을 포함하여 확대된 개념으로 일반적인 ‘대중음악’이라는 용어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대중음악’은 ‘파퐁러 뮤직(Popular Music)’으로 불리며, 파퐁러코스, 파퐁러뮤직전공, 팝전공 등으로 대학과 단기대학 음악학부(과)에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응용음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음악대학에서 Applied Music은 학과의 명칭이 아니라, ‘음악연습’

4) 한국에서는 ‘Gebrauchsmusik’과 ‘Applied Music’을 똑같이 실용음악이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Gebrauchsmusik’을 ‘Utility Music’이라고 번역하여 ‘Applied Music’과 차별을 두고 있다.

5) “시간의 경과에서 인류음악을 크게 분류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3분할 할 수 있다. 이 3대 시간구분에 맞게 음악학 본연의 자세를 재고해 보면, 연구방법의 차이에 따라 (1) 음악의 과거를 역사학적으로 취급하는 「음악사학(또는 음악역사학)」, (2) 음악의 현재를 비교학적으로 취급하는 「비교음악학」, 그리고 (3) 음악의 미래를 취급하는 「응용음악학」으로 바꿀 수 있다.” 山口 修. 應用音樂學, (東京: 放送大學教育振興會, 2003). p. 11.

을 뜻하는 Practical Music⁶⁾의 학문적 용어로, 교수와 학생이 일대일로 연주나 가창기법을 배우는 실기연습을 의미하는 교과목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따라 한국의 음악대학에서도 개인 지도를 전공실기라고 부르며 영어로 Applied Music이라고 표기하고 있다.⁷⁾

영어의 'Applied Music'이 '실용음악'을 위시하여 여러 다른 용어로 해석되는 것처럼 '실용음악'이라는 한국어의 의미 역시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폐파된 대구미래대학 디지털음악과는 학과목 중에서 '실용음악 이론'과목을 상업음악을 뜻하는 'Commercial Music Theory'라고 번역하고 있었으며, '대중음악사'는 'The History of Commercial Music'이라고 번역하여, '실용음악'과 '대중음악'과 '상업음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은 음악과로 바뀐 제주한라대학 생활음악과의 영어명칭은 오히려 Department of Applied Music으로 되어 있었다. 서울예대 실용음악과는 교육목표에서 방송음악, 매체음악, 영화음악, 광고음악, 대중음악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⁸⁾, 대구예술대학교 음악계열 실용음악전공은 '실용음악'을 총체적인 재즈의 이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재즈와 상업음악으로 이해하고 있다.⁹⁾ 동신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실용음악과와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의 교육목표에서는 '실용음악'을 '대중음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¹⁰⁾

- 6) 부산예술대학 실용음악과의 명칭은 Practical music dept.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http://www.pia.ac.kr/2004/depart/depart2005/main01.asp>)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서는 실용음악의 명칭을 Applied music으로 바꾸었다. (http://music.pia.ac.kr/intro/int_3.asp)
- 7)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경우, 건반악기, 성악, 관현악 전공실기과목은 Applied Music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작곡전공실기는 Applied Major Music이라고 표기하고, 한국음악 전공실기는 Korean Applied Music으로 표기하고 있다. (<http://home.ewha.ac.kr/~music/>)
- 8)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방송음악, 매체음악, 영화음악, 광고음악, 대중음악 등 날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실용음악분야에.... (<http://www.seoularts.ac.kr/process/process11.jsp>)
- 9) 대구예술대 실용음악전공: 현재 전 세계적인 실용음악의 추세는 재즈의 이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재즈와 커머셜 뮤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http://www.tau.ac.kr/course/department.asp?majorcode=25>)
- 10) 동신대학교 실용음악과: 전통과 현대 대중음악과의 접목을 시도...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인재들을 배출... (<http://www.dsu.kr/sub03010500>)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능할 수 있는 예술인의 자질과 개인의 능력 향상. (<http://www.mjc.ac.kr/subjectAction.do?reqType=artphysicalinfoPage&subCode=3527&changeNum=5>)

대중음악과로 시작하여 실용음악과¹¹⁾로 바꾼 공주영상정보대학의 경우와, 대중가요과로 시작하여 실용음악과로 학과의 명칭을 바꾼 초당대학교, 생활음악과로 시작하여 다음 해에 실용음악과로 명칭을 바꾼 한양여자대학, 방송음악과에서 실용음악과로 바꾼 우송정보대학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실용음악’이라는 용어를 학과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대학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에 개설되는 대중음악계열학과 대부분의 명칭이 ‘실용음악과’ 또는 ‘실용음악전공’으로 되어, ‘실용음악’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일반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학과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중음악 교육을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서울예술대학의 학과 명칭이 실용음악과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른 대학들이 활발하게 대중음악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년간을 거의 독보적으로 존재한 서울예대 실용음악과를, 뒤에 개설되는 다른 대학들이 모델로 삼으면서, ‘실용음악’이라는 단어는 많은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교육하는 학과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서울예대는 실용음악과를 개설하였을 때 ‘Applied Music’을 ‘실용음악’의 영어명칭으로 사용하였다. Applied라는 단어를 활용한 응용미술(Applied Arts)이나 응용과학(Applied Science)이라는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음에도, 서울예대에서 학과의 명칭으로 ‘응용음악’ 대신에 ‘실용음악’을 택한 것은 발음이 용이한 까닭과 함께, 응용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용이라는 단어가 좀 더 친근하고 대중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었다.¹²⁾ 이제 한국에서 ‘대중음악(Popular Music)’은 ‘고급음악(클래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좁은 의미의 유행음악을 의미하고, ‘실용음악(Applied Music)’은 재즈를 포함한 ‘대중음악’ 전체와 ‘클래식 음악’의 일부분까지 아우르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

11) 영어 명칭은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이다.

12) “‘응용음악’하면 왠지 학문적으로 가야할 것 같고, ‘실용음악’하면 보다 더 실생활과 밀접하게 느껴져서.” 정성조(1989-1994: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학과장, 1994-2004: KBS 관현악단장, 2005-현재: 서울예대 교수),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 버클리음악대학에 유학하여, 미국대학에서 정식으로 재즈를 배워 온 최초의 한국인. 이는 많은 후배 연주인들이 재즈를 배우러 버클리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계기가 되었다. 안산 서울예대에서 본 연구자와 인터뷰. 2005, 06, 07.

되었다.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실용음악’이란, 예술성보다는 실용성(대중성을 포함한)을 우선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음악이며, ‘예술음악(클래식음악)’조차도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실용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클래식이라도 영화음악에 쓰이면 그것은 실용음악이지요”(김동성, 2004)¹³⁾

2. 2년제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발전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발족한 전문대학은 1979년, 1982년, 1987년에 계속 전형방법이 바뀌다가, 1988년에 전형방법은 대학입학 학력고사+고교 내신성적(30%)+면접고사로 바뀌었으며 예·체능계 학과의 경우 실기고사가 추가되는데, 각 전형방법의 반영비율과 면접고사의 점수화 여부, 그리고 실기고사 실시 여부를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다.¹⁴⁾ 대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대입학력고사의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입학력고사의 점수가 나쁘거나, 졸업한지 오래되어서 아예 학력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도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학력고사의 점수가 나빠서 대학에 가기 힘들었던 학생들과,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 등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특히 실용음악 쪽에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았다.

1987년 12월, 당시 서울예대 학장 ‘유덕형’은 미래는 대중문화의 시대가 되리라고 예측하고 대중문화 중에서 그 때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새로운 형태의 음악교육(재즈를 포함한 국악의 활용)을 실시하는 퓨전 음악계열의 학과를 개설하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재즈 연주자 ‘정성조’를

13) 김동성(현, 호원대교수), 아미가호텔에서 본 연구자와 인터뷰, 2004, 11, 21.

14) 주광신 외, “전문대학 정채성 연구(200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제 2003-9호에서 정리.

만나 새로 신설할 학과에 대해 의논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교수진의 인선 등 제반 작업을 ‘정성조’에게 일임하였다. ‘정성조’는 음악선배이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재즈연주인 겸 가요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던 ‘길옥윤’, 한국 뮤지컬 음악의 선구자인 ‘최창권’, 클래식음악을 전공하였으나 록음악과 재즈음악을 연주하던 ‘김동성’과 함께¹⁵⁾ 새로운 학과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몇 번의 미팅을 가졌다.

“처음에 제시된 학과명은 상업음악, 대중음악, 응용음악, 실용음악, 재즈... 등이었다. 그러나 상업음악과 대중음악은 너무 가벼운 것 같고, 응용음악은 왠지 응용미술을 흉내 낸 것 같고.... 재즈.... 재즈는 뭐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용음악’이라고 정했어요” <정성조, 2004> ¹⁶⁾

이와 같이 한국 최초로 대학에서의 실용음악교육은 1988년 3월, 서울예대에서 국악과 2부(야간) ‘실용음악전공’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으며, 1년 뒤인 1989년에 국악과 2부 ‘실용음악전공’은 실용음악과로 학과의 명칭을 바꾸고 독립하였다. 몇 년 동안 유일한 실용음악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의 성공은 뒤이어 많은 대학에 실용음악 계열 학과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클래식음악전공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던 제주한라대학 생활음악과는 건반악기, 관현악, 타악기, 성악, 작곡, 지휘, 실용음악, 국악, 클래식기타, 음악치료, 예술경영에 이르는 다양한 학과 내 세부전공을 두고, 한 학과에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실용음악을 교육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폐과된 구미1대학 생활음악과에도 ‘대중음악전공’이 생겨 2년제 대학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의 확산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에 수원여자대학 생활음악과의 ‘심상숙¹⁷⁾’교수는 평소에 관심이 많던 ‘대중음악’에 관한 교육을 시도하면서 생활음악과 안에 ‘클래식음악전공’과 함께 ‘대중음악전공’을 개

15) 정성조·길옥윤·최창권·김동성의 네 사람이 주축이 되어 초기 실용음악과를 이끌고 나아갔다.

16) 안산 서울예대에서 연구자와 인터뷰 내용 중에서. 2004, 12, 06.

17) 대중음악 가수 ‘심수봉’이 조카여서 ‘심상숙’교수는 일찍부터 대중음악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설하는 데에 앞장섰다. 이렇게 ‘실용음악’이나 ‘생활음악’ ‘대중음악’이라는 명칭의 차이처럼 각 학교는 조금씩 다른 성격으로 실용음악 계열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1994년에 개교한 부산예술학교는 다음해인 1995년에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음악과 안에 세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음악과는 폐과되었고, 기악, 보컬, 창작, 국악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 실용음악과로 발전하였다.

초기 실용음악과의 졸업생들이 외국 유학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90년대 후반에, 실용음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힘입어 점점 더 많은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국제대학(전, 경문대학)에 생활음악과가 신설되면서 ‘클래식음악전공’과 함께 ‘실용음악전공’교육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에, ‘김동성’이 학과장을 맡은 영상음악과를 포함한 동아방송예술대학이 경기도 안성에서 개교하였다. 특이한 것은, 영상음악과에서 학과목으로 개설한 뮤지컬과목이 있었으나, 동아방송예술대학은 2005년, 같은 대학 내 공연예술계열에 ‘뮤지컬전공’을 새로 개설하여 실용음악의 교육이 점점 세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1999년에는 계명문화대학 생활음악과와 공주영상정보대학 대중음악과가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김포대학에 생활음악과가 개설되고, 여주대학 음악과에 ‘실용음악전공’ 등이 만들어지면서 실용음악계열의 학과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태곤’이 학과장을 하고 있던 공주영상정보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에서는 클래식음악전공교수가 학과장으로 학과를 대표하고 있었다. 2000년에 명지전문대학 음악과에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고, 백제예술대학과 주성대학에 실용음악과가, 대구미래대학 디지털음악과가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창원전문대학(2001년), 한국기독교음악대학, 남도대학(2004년), 백석대학(2004년), 신홍대학(2004년), 재능대학(2004년) 그리고 한양여자대학(2004년)등 2년제 대학에 속속 실용음악계열의 학과가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대중음악, 재즈음악, 실용음악, 생활음악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학과가 개설되었으나, 뒤에 신설되는 학과들은 모두 ‘실용음악’을 학과의

명칭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공주영상정보대학의 대중음악과와 한양여자대학의 생활음악과의 경우처럼 학과의 명칭을 다르게 시작했다가 1년 뒤에 실용음악과로 명칭을 바꾸기도 하였다. 이렇게, ‘실용음악’이라는 명칭은 교육현장에서 정착이 되어 갔다. 2002년에는 실용음악과를 포함해서 10개의 학과로 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이 평택에 신설되면서 국립대학으로 최초의 실용음악과를 개설한 학교가 되었다. 2003년에 한국재활복지대학 실용음악과는 멀티미디어음악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8년에 2년제 전공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학점 인정교육기관에서 정식 대학으로 승격한 백석예술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에는 실용음악전공과 교회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었고, 국제예술전공대학(국제예술대학)은 실용음악/CCM교육과정과 뮤지컬교육과정 그리고 클래식교육과정의 세 과정을 시작하였는데 실용음악계열의 학과로는 유일하게 실용음악과정에서 세부전공으로 ‘힙합전공’을 뽑고 있다. 2009년에는 동서울대학 공연예술학부에 실용음악전공이, 2010년에는 대경대학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었다. 2·3년제 대학(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실용음악계열 학과의 개설연도와 학과명 또는 전공명과 학교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표 1> 2·3년제 대학 실용음악계열 학과의 개설연도¹⁸⁾와 소재지

학 교	학과 또는 전공 명	개설연도	소재지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3년제)	1988년	안산
수원여자대학	대중음악과	1994년	수원
제주한라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1994년	제주
부산여자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1995년	부산
부산예술대학	실용음악과	1995년	부산
경북대학	실용음악과	1996년	남양주
제주관광대학*	음악예술과(실용음악전공)	1996년	제주
김천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1997년	김천
국제대학	실용음악과	1998년	평택

18) 학과의 개설 연도는 신입생이 입학한 연도이다.

학 교	학과 또는 전공 명	개설연도	소재지
동아방송예술대학	영상음악계열-(3년제)	1998년	안성
우송정보대학	실용음악과	1998년	대전
계명문화대학	생활음악과	1999년	대구
공주영상정보대학	실용음악과	1999년	공주
김포대학*	생활음악과(실용음악전공)	1999년	김포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1999년	여주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	2000년	서울
백제예술대학	실용음악과	2000년	익산
성덕대학*	음악계열(실용음악전공)	2000년	영천
주성대학	실용음악과	2000년	청원
창신대학*	음악과(CCM실용음악)	2000년	마산
창원대학	실용음악과	2001년	창원
한국재활복지대학	멀티미디어음악과	2002년	평택
백석문화대학	실용음악학부	2004년	천안
신흥대학	기독교실용음악과	2004년	의정부
재능대학	음악계열/재즈음악전공	2004년	인천
전남과학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4년	곡성
전남도립대학	실용음악과	2004년	담양
한양여자대학	실용음악과	2004년	서울
동주대학	실용음악과	2005년	부산
서라벌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5년	경주
성화대학	예체능계열/실용음악전공	2005년	강진
나주대학*	공연예술제작학부(무대실용음악전공)	2006년	나주
동부산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6년	부산
수원과학대학	음악계열/실용음악전공	2006년	화성
국제예술대학	실용음악CCM	2008년	서울
백석예술대학	교회실용음악(CCM)전공	2008년	서울
백석예술대학	실용음악전공	2008년	서울
동서울대학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전공	2009년	성남
대경대학	실용음악과	2010년	경산
비전대학	국제문화과/실용음악전공	2010년	전주
원광보건대학	문화산업계열/방송연예과	2010년	익산

* 표는 음악과 안에 세부전공으로 있는 실용음악전공이며, 대학의 명칭과 학과(전공)의 명칭은 현재의 명칭이다.

3. 4년제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발전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대학 정원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고 학사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제시하였다. 대학 정원 자율화는 대학 스스로 정원을 결정·통제하는 것으로 자율의 내용과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다.¹⁹⁾

1단계(1995년도)는 ‘포괄 승인제’로서, 지금까지 학과 신설·폐지, 정원 증원 등을 원하는 대학은 3월말까지 교육부에 이를 신청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교육부가 개별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평가하여 계열별 정원 폐지와 증원, 혹은 감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2단계(1996년도)는 ‘교육여건 연동제’로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여건 지표 이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학에 한하여 정원 책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종전과 같이 ‘포괄 승인제’로 교육부의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3단계(1998년도)는 ‘완전 자율화 단계’로서, 정부는 정원 조정에 관여하지 않고 수급 전망 등 참고자료만 개발하여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 간 공정 경쟁의 원칙을 무시하는 등 대학의 자율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때만 사후 감사 등을 통하여 이를 문제 삼는다는 단계이다.²⁰⁾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관점²¹⁾도 있지만, 정원규모 내의 자율조정으로 학과 신설이 용이해 진 ‘포괄 승인제’의 1단계는, 2년제 대학에서 기술교육처럼 진행되고 있던 실용음악교육이 4년제 대학에서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포괄 승인제(1단계)’가 시행되던 1995년(1996학년도 대상학생)에 수도권 대학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19) 교육부, “21세기 새지평 교육개혁”, 교육개혁평가연구회, 1997, p. 111

20) 남상문, “한국 고등교육정책 분석연구”,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2001) pp. 75-76.

21) 남상문,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은 법정 교육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정원의 자율화 정책은 교육여건 부족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신입생 미충원인원 증가 등, 교육 요건 충족과 더불어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상계서, pp.89-90.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새로운 학과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과는 반대로 지방에서는 새로운 학과의 개설과 심지어는 학교의 설립도 자유로웠다. 그리하여 4년제 대학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학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한서대학교는 4년제 대학으로는 최초로 1997년에 영상음악과의 명칭으로 클래식음악과 실용음악 사이에서 실용음악계열 학과를 시작하였고(지금은 완전히 실용음악과로 명칭과 교과과정이 바뀌었다), 같은 해에 대구예술대학교는 음악과에 정원 10명인 ‘실용음악(Practical Music)전공’으로 조출하게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였다. 비록 명칭은 ‘영상음악’, ‘실용음악’이었으나 완벽한 형태의 실용음악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임교수들이 모두 클래식음악을 전공한 교수들이어서 실용음악보다 클래식음악의 교과목을 더 많이 편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수도권 대학도 자율화 대상에 포함된 다음해인 1998년 3월, 동덕여자대학교가 공연예술학부를 신설하고 실용음악전공 신입생을 모집하여 4년제 대학에서의 본격적인 실용음악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실용음악전공의 학과장은 미국유학에서 돌아와 1994년 2학기부터 서울예대에 출강하던 ‘김광민’이었다. 버클리음악대학 출신인 ‘정성조’와 켈른음악대학 재즈과 출신의 ‘김동성’이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의 교과과정을 만든 것처럼, ‘김광민’은 미국 버클리음악대학과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같이 공부한 후배 ‘마도원’과 함께 동덕여대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유학한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의 교과과정과, 또 두 사람이 출강하고 있던 서울예전 실용음악과의 교과과정을 참고로 하여, 동덕여대 실용음악전공의 교과과정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두 학교의 교과과정은 비슷해졌고, 뒤에 개설되는 실용음악계열 학과들도 이 교과과정을 복제하면서 마치 4년제 대학 실용음악과의 표준 교과과정처럼 되어갔다.

같은 해(1998년) 산업대학교인 청운대학교가 방송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음악과에 ‘방송음악전공’이 개설되었다. 2000년에 경희대학교는 수원캠퍼스를 새로 신설하면서 국악을 활용한 퓨전음악과를 개설하였는데, 학과의 이름으로는 일반화 되지 않은 포스트모던음악과였다. 같은 해

인 2000년, 산업대학교로 시작한 초당대학교가 대중가요과를 신설하고 실용음악계열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001년, 단국대학교 예술학부에 생활음악전공, 천안대학교에는 기독교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었고, 2002년에는 중부대학교 예술체육대학에 공연예술영상계열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되었다. 2003년에 호서대학교는 예체능대학 디지털음악학과와 인문대학 기독교연예학과를 각각 개설하였다. 같은 해인 2003년에 계명대학교 음향제작과(지금은 '뮤직프로덕션과'로 명칭이 바뀌었음)와 대불대학교 실용음악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2004년에는 예원예술대학교 방송공연학부(지금은 "공연음악학부"로 바뀌었음)에 실용음악전공이, 2005년에는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에 실용음악학부가 만들어졌고, 평택대학교 음악학부에 실용음악학전공이 개설되었다. 2006년에는 경성대학교 신학대학 예능계열에 실용음악전공이, 관동대학교 음악과에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었다.

같은 2006년에는 '김동성'을 학과장으로 산업대학교 호원대학교 방송연예학부 대중음악전공이 개설되었는데 동덕여대 실용음악과처럼 교·강사진이 모두 실용음악전공자로 이루어져서 실용음악 교육을 하는 또 다른 4년제 대학이 되었다. 2008년에는 성민대학교에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고, 2009년에는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에 실용음악전공이, 칼빈대학교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되는 등, 근년에 들어 4년제 실용음악과의 개설은 나날이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비록 대학교는 아니지만, 1996년에 명지대학교 부설기관인 사회교육원에 '실용음악전공'²²⁾이, 1997년에는 숭실대학교 사회교육원 음악과정에 '실용음악전공'이 만들어졌다.

4년제 대학 실용음악계열 학과의 개설연도와 학과명 또는 전공명과 학교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22) 1996년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실용음악과 교육의 노하우와 인적자원은 2000년에 명지전문대학 음악과에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표 2> 4년제 대학 실용음악계열 학과의 개설연도²³⁾와 소재지

학 교	학과 또는 전공명	개설연도	소재지
대구예술대학교	음악계열/실용음악전공	1997년	대구
한서대학교	예술학부/실용음악과	1997년	서산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실용음악과	1998년	서울
청운대학교	방송·예술대학/방송음악과	1998년	홍성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2000년	수원
초당대학교	(실용)음악학과	2000년	무안
단국대학교	예술대학/생활음악전공	2001년	천안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기독교실용음악학전공	2001년	천안
중부대학교	실용음악학과	2002년	금산
중앙대학교*	음악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2002년	안성
호서대학교	인문대학/기독교연예학과	2002년	천안
계명대학교	미디어아트대학/뮤직프로덕션과	2003년	대구
대불대학교	실용음악학과	2003년	영암
대신대학교*	교회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3년	경산
명신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2004년	순천
예원예술대학교	공연·음악학부/실용음악전공	2004년	임실
동아대학교*	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5년	부산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작곡·재즈학부(재즈전공)	2005년	대전
평택대학교	방송미디어학부/실용음악학전공	2005년	평택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6년	부산
관동대학교*	음악학부(실용음악전공)	2006년	강릉
동신대학교	문화관광학부/실용음악학과	2006년	나주
한세대학교*	음악학부(작편곡전공)	2006년	군포
호원대학교	방송예술대학/실용음악학부	2006년	군산
광주대학교*	음악학부(실용음악보컬전공)	2007년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2007년	광주
성민대학교	예술체육학부/실용음악전공	2008년	천안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2009년	부산
칼빈대학교	실용음악과	2009년	용인
나사렛대학교	음악학부/실용음악전공	2010년	천안

* 표는 음악과 안에 세부전공으로 있는 실용음악전공이며, 대학의 명칭과 학과(전공)의 명칭은 현재의 명칭이다.

23) 학과의 개설연도는 신입생이 들어온 연도이다.

Ⅲ. 대학 실용음악 계열학과의 개설형태

1998년 전문대학 교명 자율화 이후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교명을 '전문대학'에서 '대학'으로 바꾸면서 학과의 체계도 계열별 또는 학부제로 바꾸었다. 한편 4년제 대학의 경우도 학부제에서 다시 학과제로 돌아가거나, 뒤늦게 학부제나 계열별로 학과의 체계를 바꾸거나 하였다. 2010학년도,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실용음악계열 학과의 개설형태를 다음의 세 가지 패턴으로 구분하였다.

1. 신설 또는 명칭변경 학과

1988년 서울예대 국악과2부 실용음악전공으로 시작한 새로운 학과는 가요 작곡가이며 재즈 연주자인 '길옥윤'을 학과장으로 영입한 순간부터 학과의 명칭처럼 전통적인 국악의 교육과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음해인 1989년에 학과의 명칭을 실용음악과로 바꾸었다. 1997년, 한서대학교에 신설된 영상음악과는 예술학부 실용음악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1998년, 시작된 우송정보대학의 방송음악과도 2003년에 학과의 명칭을 실용음악과로 바꾸었다. 공주영상정보대학의 경우도 1999년 대중음악과로 시작하였다가 변경인가를 받아, 다음해인 2000년부터 실용음악과로 과명을 바꾸었다. 한양여자대학도 2004년에 생활음악과로 시작하였으나 1년 뒤에 실용음악과로 학과의 명칭을 바꾸었다. 일단 정해진 실용음악과라는 명칭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뒤따라 신설되는 실용음악계열의 학과들은 많은 경우가 '실용음악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산예술대학, 우송정보대학, 주성대학, 신홍대학, 창원전문대학, 전남도립대학 등의 학교는 처음부터 실용음악과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였다. 한편으로 2002년에 신설된 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실용음악과는 2003년에 멀티미디어음악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2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과보다 '예체능대학'이나 '음악대학'에 속한 소분류 학과의 형태

를 보이거나, 학부제로 바뀐 대학의 경우처럼 ‘예체능학부’나 ‘음악학부’, 또는 ‘예체능계열’이나 ‘음악계열’ 등으로 구분한 단위 아래에 실용음악과 또는 실용음악전공의 형태로 개설되어 있다. 대구예술대학교(구, 돈보스코 예술학교)는 1997년에 음악과(정원60명)내에 실용음악전공(정원10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음악공연계열 실용음악전공으로 바뀌었다가 실용무용전공과 방송연예전공으로 방송공연계열을 개설하면서, 실용음악전공은 음악계열로 소속을 옮겼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실용음악전공, 방송연예전공, 무용전공의 세 전공으로 1998년에 개설한 공연예술학부를, 지금은 실용음악과, 방송연예과, 무용과, 그리고 모델과의 4개의 학과로 이루어진 공연예술대학으로 바꾸었다. 2001년 단국대학교 예술학부 내에 신설된 실용음악전공은 예술대학 생활음악과²⁴⁾로 바뀌었다. 아산과 천안, 두 군데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호서대학교는 2002년 기독교계열 기독교연예학과(천안캠퍼스)를 개설하였는데,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다음해인 2003년, 아산캠퍼스에 디지털문화 예술계열 디지털음악학과를 신설하였다. 지금은 각각 인문대학 기독교연예학과와 예체능대학 디지털음악학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편으로 학부제를 유지하면서 학부의 편성을 바꾼 대학도 있다. 2000년에 방송공연학부 등으로 전북 임실에서 개교한 예원예술대학교는 2005년부터 방송공연학부 내에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였다. 지금은 공연·음악학부로 학부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기존에 있던 ‘피아노전공’을 확대하여 ‘실용음악전공’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음악전공’을 만들었다.

중부대학교처럼 “예술체육대학” 안에 공연예술영상계열을 두고 실용음악학과를 두는 경우도 있고, 대불대학교의 예체능계열 실용음악학부(입학정원;100명)나, 호원대학교의 방송예술대학 실용음악학부(입학정원;100명)처럼 학과 정원이 많은 경우에는 보다 확대된 학과편제인 ‘학부’로 실용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희대학교가 2000년도에 예술디자인계열 예술학부에 개설한 포스트모

24) 4년제 대학에서 학과 명칭으로 ‘생활음악’을 사용하는 학교는 단국대학교가 유일하다. 단국대학교 생활음악과. (http://www.dankook.ac.kr/web/kor/c2_7_6)

던음악전공의 시작은 국악을 활용한 ‘퓨전 음악과’였다.²⁵⁾ 지금도 입시에 서 국악 전공자를 몇 명씩 선발하고는 있지만, 재즈피아니스트 ‘이우창’이 오랫동안 전공주임으로 있으면서 포스트모던음악전공의 교육과정은 재즈 중심으로 굳어졌다. 2003년에 계명대학교는 음향제작과를 포함한 공연예술대학을 신설하였다. 2004년에는 음악대학과 공연예술대학을 통합하여 음악·공연예술대학으로 바꾸었고, 동시에 음향제작과는 학과 명칭을 뮤직프로덕션과로 바꾸면서 음악·공연예술대학으로 편제 이동하였다가, 2006년에 미디어아트대학으로 옮겼다.²⁶⁾ 현재 뮤직프로덕션과는 ‘실용음악연주’, ‘실용작·편곡’, ‘사운드디자인’, ‘사운드레코딩’의 4개의 세부전공을 두고 다른 실용음악과와 차별화된 특화교육을 하고 있다(이에스더, 2010년).

1990년에 클래식 생활음악과로 시작한 재능대학은 2004년에 생활음악과를 예체능계 ‘클래식피아노전공’과 ‘재즈음악전공’으로 분과하면서 실용음악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재즈음악과로 학과의 명칭을 바꾸었다. 클래식피아노전공은 원래의 명칭인 생활음악과로 바뀌었다가 클래식음악과로 바뀌었다가 2008년에 다시 음악계열로 합치면서 클래식음악과는 생활음악전공으로 바뀌고 재즈음악과는 재즈음악전공으로 바뀌었다. 동아방송예술대학은 1998년 안성에서 개교하면서 실용음악계열의 학과 명칭을 영상음악과로 정했다가 2004년에 학과 명칭이 영상음악계열로 바뀌면서 기악, 성악(보컬), 작곡전공으로 세분화되어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서울예대와 함께 2년제에서 3년제 과정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목원대학교는 디지털음악전공(정원30명)과 뮤지컬전공(정원20명)등 2개의 전공으로 음악대학 내에 실용음악학부를 신설하였다. 실용음악학부는 2006년에 공연예술학부로 바뀌어서 디지털음악전공은 재즈전공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음악대학’ 안에 작곡, 재즈학부를 두고 세부

25) 1988년, 서울예전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될 때에도 같은 목적에서였다.

26) 계명대학교 뮤직프로덕션과. (<http://music.kmu.ac.kr>). 뮤직프로덕션과는 2004년 누리(NURI: New Unievrsty Regional Innovation)사업-국가가 지원하는 5년간, 약 270억원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대형프로젝트-을 수주하여, 뮤직프로덕션과, 애니메이션과, 시각디자인과, 게임학과와 함께 미디어아트대학을 신설하여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하였다.

전공을 ‘작곡전공’과 ‘재즈전공’으로 나누었다.

2006년 김동성을 주임교수로, 방송연예학부 내 대중음악전공으로 시작한 산업대학교 호원대학교는 다음 해에 학과의 명칭을 방송예술대학 실용음악학부로 바꾸었다. 같은 해에 시작한 동신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실용음악학과는 실용음악계열의 학과 중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교직과정을 개설하여, 중등음악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특이하게 백석문화대학의 경우에는, 2004년 예체능계열 실용음악학부를 신설하면서 ‘실용음악전공’, ‘컴퓨터음악전공’과 함께 클래식 ‘피아노전공’을 실용음악학부 내에 두었다. 지금은 예체능계열 피아노과로 독립하였다. 2000년에 개설된 초당대학교 실용음악학과는, 내용은 그대로 실용음악을 교육하는 학과인데 ‘실용’을 빼고 예체능계열 음악학과로 학과의 명칭을 바꾸었다. 2009학년도 학교 소개에는 음악과로 되어 있는데, 학과 홈페이지에는 실용음악과라고 표기하고 있다.²⁷⁾ 이것을 보면 실용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함께 포함하여 교육하려는 초당대학교 음악과의 차별화를 엿볼 수가 있다. 최근에도 실용음악과의 개설은 계속되고 있어서, 2008년에는 성민대학교 예술체육학부에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되었다. 2009년 칼빈대학교는 실용음악과를 개설하였고, 같은 해에 동서울대학은 연기전공, 실용무용전공, 실용음악전공의 세 학과로 공연예술학부(3년제)를 신설하였다.

2. 학과의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개설

서울예술대학이나 동덕여자대학교 그리고 호원대학교처럼 처음부터 실용음악전공자들로 교·강사진을 구성하고 실용음악과를 출범시킨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클래식전공교수들이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게 실용음악과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클래식 음악과 안에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만들어서 한걸음씩 단계적으

27) 실용음악학과는 보다 나은 대중문화를 이끌 수 있는 전문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첨단 시설과 유명교수님들을 초빙하였으며, 실용음악과 순수음악을 결합할 수 있는 종합예술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생략).. 초당대학교 실용음악과.
(<http://www.chodang.ac.kr/>)

로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였다. 1994년 제주한라대학에 생활음악과라는 명칭의 학과가 개설되었을 때에 실용음악전공과 음악전공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신입생을 모집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여자대학, 제주관광대학, 김천대학, 성덕대학, 김포대학, 전남과학대학 등 음악과나 생활음악과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 개설한 많은 대학에서 순수음악과 함께 실용음악전공 학생들을 함께 선발하여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보통 이런 경우에 학과 전체의 정원은 정해져 있으나 '순수음악(클래식)전공'이나 '실용음악전공' 등의 내부 전공별 정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원자에 따라 실용음악전공의 학생 수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 변동이 생겨서 전공별 교육을 진행하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실용음악전공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은 학과 안에서 클래식, 실용음악, 국악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1994년부터 '실용음악 1, 2'의 교과목을 교육하기 시작한 제주한라대학의 생활음악과는, 실용음악전공자가 아닌 클래식음악전공자들에게 실용음악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최초의 학과이다. 음악과 안에 세부전공으로 크게 보면 '클래식음악전공'과 '실용음악전공'의 두 가지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보통인데, 제주한라대학과 제주관광대학의 경우에는 '클래식', '재즈를 포함한 실용음악' 그리고 '국악'의 세 전공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2000년에 제주관광대학은 음악과에서 음악예술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7년에는 제주한라대학이 생활음악과에서 음악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김천대학은 1996년 생활음악과(정원80명)에 실용음악전공이 있었으나, 1997년에 학과의 명칭을 음악과(정원80명)로 변경하고, 2000년에는 정원을 60명으로 축소하면서 '실용음악전공'을 없애고 대신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상음악' 2학년 교육과정에서 '재즈화성학 1,2'와 '컴퓨터음악'과목 등 실용음악계열의 과목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지금은 '실용음악전공'을 다시 개설하였다. 김천대학처럼 생활음악과에서 음악과로 명칭이 바뀐 전남과학대학의 경우에도, 1993년 클래식음악을 교육하는 생활음악과(정원40명)로 시작하여 2004년 생활음악과 '대중음악전공'으로 학생을 모집하

였으나, 2005년 음악과(정원50명)로 학과의 명칭을 바꾸고 지금은 음악과(정원35명)안에서 세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선발하고 있다. 물론 음악과라는 학과의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대중음악보다는 클래식음악을 위주로 교과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1998년, 국제대학(전, 경문대학)에 생활음악과가 신설되면서 '클래식음악전공'과 함께 '실용음악전공'교육을 시작하였고, 1999년에 생활음악과의 정원을 80명으로 증원하면서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한 김포대학도 생활음악과 안에 '순수음악전공'과 '실용음악전공'을 함께 교육하고 있지만, 2009년에 120명으로 늘렸던 정원을 2010년에는 90명으로 줄였고 1학년 대부분은 실용음악 전공자이다. 성덕대학의 경우에는 음악계열(정원40명)안에 '클래식전공', '실용음악전공', '마칭전공'의 세 가지 전공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더욱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80명으로 시작한 입학정원이 60명에서 지금은 4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다른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인원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가 위치한 경북 영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음악계열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존의 음악과 전공인 '피아노전공', '작곡전공', '관현악전공' 등 세부전공에 '실용음악전공'을 하나 더 추가해서 개설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1995년에 음악과 안에 '재즈피아노전공'으로 실용음악계열의 교육을 시작한 부산여자대학 음악과는 지금은 클래식음악의 다른 전공들(피아노·성악·관현악·작곡)과 함께 '실용음악전공'을 두고 있다. 2005년에 동아대학교는 예술대학 음악과작곡전공 안에 세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정원10명)'으로 시작하여, 예체능계열 음악학과(정원40명)로 바뀐 2009년에는 내부에 성악(정원20명)전공과 실용음악(정원20명)전공을 두고 있다.

관동대학교는 예술디자인대학 음악과 안에 '관/현/타악기전공', '피아노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이 있었으나 2006년에 '관/현/타악기전공'과 '피아노전공'으로 줄이고 '실용음악전공'을 새로 개설하였다. 지금은 음악과의 명칭이 음악학부로 바뀌었지만, 교과과정 등 모든 것은 음악과 시절과 변함이 없다. 한편, 대신대학교는 교회음악과의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였다. 2004년, 명신대학교는 피아노학과(2000년)로 발족하

여 2001년에 개칭한 음악학과에 '실용음악전공'과 함께 '뮤지컬전공'을 추가하였다. 음악학과에서 '컴퓨터음악전공'을 개설(2000년)하여 'Jazz화성법'과 'Pop History'등 실용음악과목을 교육해 오던 동의대학교는 2009년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과에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였다.

특이하게 음악과가 아닌 학과에서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이 개설된 학교도 있다. 나주대학은 '디지털방송제작전공'과 '무대예술제작전공'으로 구성된 공연예술제작학부의 내부전공을 '실용음악전공'과 '방송연극전공'으로 바꾸었다. 비전대학도 2008년에 사회실무계열 국제문화과(28)를 신설하고 내부전공으로 지도자양성과 함께 공연예술과정 실용음악과정(정원 20명)을 두었으나, 본격적인 학생의 모집은 2010년부터 시작하였다.

김천대학처럼 처음에 생활음악과로 시작하였다가 음악과로 학과명을 바꾼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실용음악전공'과 '클래식음악전공'을 함께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학과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과의 총 정원 내에서 전공별로 필요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전공별로 인원은 일정하지 않지만 음악과 내에 순수음악과 실용음악전공을 세부전공으로 함께 개설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표 3>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한 음악과의 개설연도와 소재지

2·3 년 제 대 학	학 교	학과 또는 전공 명	개설연도	소재지
	제주한라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1994년	제주
	부산여자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1995년	부산
	제주관광대학	음악예술과(실용음악전공)	1996년	제주
	김천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1997년	김천
	김포대학	생활음악과(실용음악전공)	1999년	김포
	성덕대학	음악계열(실용음악전공)	2000년	영천
	창신대학	음악과(CCM실용음악)	2000년	마산
	전남과학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4년	곡성
	서라벌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5년	경주
	동부산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6년	부산
	나주대학	공연예술제작학부(무대실용음악전공)	2006년	나주
	국제예술대학	음악과(실용음악CCM과정)	2008년	서울
서해대학	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10년	군산	

28) 비전대학 국제문화과. (<http://www.jtc.ac.kr/viewpg/pageview.asp?pcd=CCBCB05>)

4 년 제 대 학 교	중앙대학교	음악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2002년	안성
	대신대학교	교회음악과(실용교회음악전공)	2003년	경산
	명신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2004년	순천
	동아대학교	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5년	부산
	목원대학교	작곡·재즈학부(재즈전공)	2005년	대전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실용음악전공)	2006년	부산
	관동대학교	음악학부(실용음악전공)	2006년	강릉
	한세대학교	음악학부(작편곡전공)	2006년	군포
	광주대학교	음악학부(실용음악보컬전공)	2007년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2007년	광주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2009년	부산

3. 내부전공에서 실용음악학과로 발전

1994년에 수원여자대학 생활음악과의 ‘클래식음악전공’과 함께 내부전공으로 개설된 ‘대중음악전공’은 1997년에는 각각 예술디자인학부 소속 대중음악과와 아동교육학부 소속 음악과로 분리되면서 수원여대는 본격적으로 대중음악교육을 시작하였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전공 대중음악과와 음악과가 지금은 예술학부 소속에 함께 있는데, 이는 대중음악과가 더 이상 음악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과로 자리를 잡았음을 뜻한다.

1994년에 개교한 부산예술학교는 다음해인 1995년에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음악과 안에 세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두었다가, 1999년에 부산예술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고 2000년에 야간과정을 신설하면서 ‘실용음악전공’을 실용음악과(야간)로 확대하였다. 2003년도에 학부제로 바뀌면서 공연예술학부 내에 ‘음악전공’과 함께 ‘실용음악전공’이 포함되었으며 9월에는 학교명을 부산예술대학으로 바꾸었다. 2005년에 다시 학과제로 바뀌면서 실용음악과로 발전하였고 음악과는 폐과하였다.

평택공과대학은 1998년, 경문대학으로 교명을 바꾸면서 생활음악과를 개설하여 클래식음악교육과 함께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다가, 2006년에 교명을 국제대학으로 바꾸면서 생활음악과를 예체능계열 실용음악과로 변경하였다.

여주대학 실용음악과는 1999년 음악과 내의 ‘실용음악전공(정원40명)’으로 개설되었는데, 특이하게 다른 대학의 음악과처럼 총 정원에 ‘실용음악전공’을 포함하지 않고 ‘실용음악전공’의 입학정원을 40명으로 따로 정하여 학생을 모집하였다. 그 후 2001년에 실용음악과(정원 40명)로 출범하였고 지금은 입학정원 110명의 큰 학과로 발전하였다. 한편, 여주대학 음악과는 학과로 독립한 ‘실용음악전공’ 대신에 ‘뮤지컬전공(정원 40명)’을 개설하여 ‘클래식전공(정원 30명)’과 함께 음악공연예술과로 편제를 바꾸어서, 실용음악은 실용음악과로 클래식은 ‘클래식전공’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1999년부터 클래식음악과 함께 대중음악의 교육을 진행하던 계명문화대학 예체능계열 생활음악과는 학과의 명칭은 그대로지만 교육내용은 실용음악으로 바뀌었다. 명지대학의 경우에는 명지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1987)”에서 1996년부터 시작한 실용음악교육을, 2000년에 “사회교육원”에서 명지전문대학으로 소속을 바꾸어서 음악과 내 ‘실용음악전공’으로 대학에서의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였는데, 2006년에 실용음악과로 독립하였다.

한편, 2001년 방송연예·생활음악과로 시작한 성화대학은 클래식음악교육과 함께 한국음악(국악)교육을 시도하고, 몇 년 뒤에는 교회음악교육도 시도하면서 학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거의 매년 학과의 명칭을 바꾸다가 지금은 ‘실용음악전공’으로 정착하였다. 중부대학교도 2002년도에 음악과에서 실용음악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클래식음악을 교육하던 커리큘럼을 실용음악 위주로 바꾸었다. 2004년 신홍대학은 생활음악과를 개설하였고, 2005년에 생활음악과의 명칭을 기독교실용음악과로 바꾸었다.

수원과학대학은 1996년에 수원공업전문학교에서 수원전문대학으로 바뀌면서 생활음악과를 개설하였고, 1999년에 학교의 이름을 수원과학대학으로 개명하면서 생활음악과의 명칭을 음악과로 변경하였다가, 2006년 음악과를 “음악계열”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음악과는 ‘순수음악전공(정원 15명)’으로 바꾸고, ‘실용음악전공(정원 45명)’을 새로 신설하였다. 대현전문대학에서 이름을 바꾼 재능대학(1998년)은 1999년에 생활음악과를 개설하였다. 2004년에 생활음악과를 예체능계 음악계열 ‘클래식피아노전공(야, 정원33명)’과 ‘재즈음악전공(야, 정원 37명)’으로 나누었다가 2006년, 음악

계열 생활음악과(정원 50명)와 재즈음악과(정원 50명)²⁹⁾로 바꾸었다.

2005년, 동주대학은 1981년에 개설된 음악과를 실용음악과로 전환하고 세부전공으로 ‘순수음악전공’과 ‘실용음악전공’을 두었으나, 현재는 ‘순수음악전공’이 없어지고 ‘실용음악전공’은 실용음악과가 되었다. 같은 2005년에 개설된 평택대학교 음악학부 실용음악학전공(정원 20명)은 다음해인 2006년 방송미디어학부가 신설되면서 방송미디어학부 실용음악학전공(정원 30명)으로 인원이 늘고 소속이 바뀌었다. 한편 음악학부는 음악과로 바뀌었다. 청운대학교 방송·예술대학의 방송음악과는 실용음악 전공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학과의 명칭은 그대로 방송음악과³⁰⁾이나 실제 교육의 내용은 실용음악교육으로 바뀌었다. 경북대학은 1992년 경성전문대학으로 개교하면서 생활음악과(정원 120명)를 개설하였는데, 생활음악과는 1996년에 음악과(정원 40명)로 변경되면서 세부전공으로 ‘컴퓨터음악전공’을 만들어 실용음악 교육을 시작하였고, 2006년에 남양주 캠퍼스로 확대되면서 음악공연예술계열 아래 ‘음악전공’과 함께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였다. 2009년에 음악공연예술계열은 예능계열 실용음악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9년, 동의대학교는 2000년에 음악학과 안에 개설한 ‘컴퓨터음악전공’을 ‘실용음악전공’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나사렛대학교는 기독교학부 음악목회학전공에서 건반, 베이스, 드럼, 기타, 보컬 등 실용음악분야의 학생을 모집해 왔으나, 2010년에 실용음악전공으로 확대하고 소속을 음악학부로 옮겨서 새롭게 전공을 개설하였다.

한편으로 폐과되는 실용음악계열도 나타나고 있는데, 영월공과대학에서 학교명을 바꾼 세경대학(1999년)은 2006년에 실용음악과(정원 30명)를 폐과하였고, 구미1대학 생활음악과는 2008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2009년에 실용음악전공을 포함한 음악과를 폐과하였다.

29) 실용음악의 많은 분야 중에서 재즈음악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최초의 재즈음악 전문학과이다. 재능대학 재즈음악과. (<http://dep.jeu.ac.kr/jazz/>)

30) 산업대학교로 설립된 청운대학교는 방송 특성화대학으로 1997년부터 5년간 교육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1998년 개설한 학과의 명칭을 방송음악과라고 하였지만, 교육의 내용은 여타 실용음악과와 같다.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http://music.chungwoon.ac.kr/>)

IV. 결론

본 연구에서 1988년에 최초로 시작된 대학 실용음악교육이 1997년부터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70여개 대학으로 확산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학장이 전문대학의 입시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 1988년에 서울예술대학에서 처음 시작된 실용음악교육은,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에 따라 새로운 학과의 신설이 자유로워지면서 한서대학교가 영상음악과의 명칭으로 실용음악교육을 시작하는 1997년부터 양적 팽창을 하여 지금은 전국에 걸쳐 42개의 2·3년제 대학과 30개의 4년제 대학교, 그리고 20개 대학원에서 실용음악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시작 발전되어 온 실용음악교육을 진행하는 학과의 개설형태는 1) 처음부터 학과를 신설하거나, 2) 음악과 등 기존학과의 내부전공으로 실용음악전공을 개설되거나, 3) 내부전공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점 발전하여 독자적인 실용음악학과가 되거나 하는 세 가지의 패턴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과정에서 지원학생의 감소로 실용음악과가 폐과되는 학교도 하나, 둘 나타났지만, 그것은 양적으로 팽창을 하던 실용음악교육이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증거로 보여 진다.

실용음악학과와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용음악교육 전공교수, 교육시설과 교육운영, 교과목, 교재, 사회 실용음악 현장과의 관계 등 이 연구에 포함하지 않은 실용음악교육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조금씩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발전,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지 않아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수집에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 따라서 다음의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아직까지 전혀 연구가 시도되지 않은 실용음악 관련학과인 컴퓨터음악학과와 뮤지컬학과의 현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15개 특목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교과정 실용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음악창작과 연주에서 레코딩, 음악비즈니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용음악분야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학과의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용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실용음악과의 입시를 위한 준비는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교육에서 나타나는 실용음악교육의 문제점이 그대로 대학으로 연장이 되고 있다. 입시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의 교육내용, 교육행태 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가 실용음악교육의 미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실용음악교육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간행물·논문

- 교육개혁평가연구회(1997). 21세기 새지평 교육개혁.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111.
- 김인호(2006). 한국대학의 대중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남상문(2001). 한국 고등교육정책 분석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박선영(2006). 대학 실용음악 프로그램의 요구와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박철홍(2001).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음악과 민족 23호, 1-29.
- 안용성(2007). 국내외 실용음악 교과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이에스더(2008). 실용음악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제7호, 133-144.
- 이에스더(2010). 뮤직프로덕션과의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 음악교육공학 제10호, 255-273.
- 이정선(2000). 실용음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학교, 서울.

주광신 외(2003). 전문대학 정체성 연구, 연구보고 제 2003-9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혜경(1999). 20세기 전반기 동안의 실용음악의 실체.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황정희(2007). 실용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서울.

山口 修(2003). 應用音樂學. 東京: 放送大學教育振興會, 11.

2. 인터넷 자료(URL) (최종검색 2010, 06, 09)

계명대학교 뮤직프로덕션과. <http://music.kmu.ac.kr/>

단국대학교 생활음악과. http://www.dankook.ac.kr/web/kor/c2_7_6

대구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http://www.tau.ac.kr/course/department.asp?majorcode=25>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http://www.dongduk.ac.kr/web/guest/377>

동신대학교 실용음악과. <http://www.dsu.kr/sub03010500>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 <http://www.mjc.ac.kr/subjectAction.do?reqType=artphysicalinfoPage&subCode=3527&changeNum=5>

백석대학교 기독교실용음악학과.

http://www.bu.ac.kr/main/uni/uni_01_01_08.jsp

부산예술대학 실용음악과. http://music.pia.ac.kr/intro/int_3.asp

비전대학 국제문화과.

<http://www.jtc.ac.kr/viewpg/pageview.asp?pcd=CCBCB05>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http://www.seoularts.ac.kr/process/process11.jsp>

이화여자대학교 실용음악대학원.

http://home.ewha.ac.kr/~mtp2000/introduction_1.html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http://home.ewha.ac.kr/~music/>

재능대학 재즈음악과. <http://dep.jeiu.ac.kr/jazz/>

창원대학교 방송음악과. <http://music.chungwoon.ac.kr/>

초당대학교 실용음악과. <http://www.chodang.ac.kr/>

ABSTRACT

The History and Establishment Shapes of Applied Music Education in Korean Colleges and Universities

Lee, Jung-Sun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the education of popular music—also known as the term ‘Applied Music’ in Korean universities—was established and totally over 70 colleges or universities, 42 junior colleges and 30 universities currently operate Applied Music department. This study surveys the beginning of the Applied Music department and its transitional process, and establishment shapes of the department. From this study, three different establishment shapes and patterns of ‘Applied Music’ department were categorized as a result. They are 1) the developmental model in which “Applied Music” as a term was used for the department at the start, 2) the developmental model that sub-categorizes “Applied Music” within the study of contemporary and pre-existing musical genres such as “Music” or “Living Music”, and 3) the developmental model in which “Applied Music”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eventually developed and separated from Group Two’s sub-categorized model.

Key Words : Applied Music Education, Popular Music, Living Music, Jazz.

투고일: 2010년 3월 30일, 심사(수정): 5월 31일(6월 6일), 게재확정일: 6월 17일